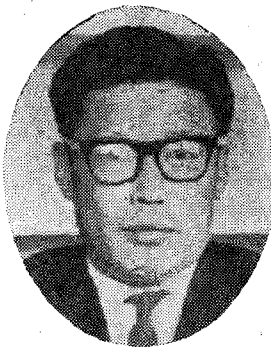


問題點으로 본

시멘트工業의現況과將來



한국일보論說委員 朴 運 大

지금 시멘트工業界는 相當히 活潑하다. 시멘트工業이라면 建設에 앞장 서는 業態인 만큼 지금의 우리 形便은 當然하다고도 하겠지만 業界의 앞날을 생각해도 亦是 앞장 서서 달리는 代表的인 存在가 아닐 수 없을 것 같다. 建設은 빠르지만 빠른 時日內에 難點에 부딪치리라는 點이 우선 工業化를 서두르고 있는 우리의 將來를 그대로 말하여 주는 形便이 아닐까 한다.

急速度로 建設되었고 지금도 그런대로 運營되고 있지만 輸出産業으로서 그 將來를 뚝고 나가자면 그 進路가 順坦할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展望은 大體로 우리 產業界 全般에 그대로 通用되는 事項이라고 斷定하여도 잘못이 아닐것이다. 우리의 이웃을 보건대 中共이 있고 臺灣自由中國이 있기는 하지만 日本을 除外하면 모두 後進國家이다. 日本은 明白히 除外되지만 東南亞는 地域的으로 넓지만 뚜렷한 後進地域일것이 事實이다.

後進地域에서 우선 앞서는 일은 政治的 安定이 아닐 수 없겠지만 다음으로 무엇보다 時急하고 重要的 것이 經濟建設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바탕에서 우리가 지금 推進하고 있는 經濟建設이 氣候라는 天然條件과 歷史에 따르는 文化程度가 좀 높다는 比重은 찾아하고 있지만 時間的으로 조금 빠르다는 것 뿐이지 무슨 絕對的인 要件을 갖춘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지금 建設事業을 서둘고 있는만큼 若干 앞선 것은 事實이겠지만 아무리 後進의인 東南亞라 할지라도 不遠하여 모두 建設事業을 推進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點을 明白히하고 建設事業을 推進해야지 將來에 問題가 생긴다는 點을 操心해야 할 것이다. 무턱대고 日本을 쫓아 가려고 日本만을 쳐다 볼 것이 아니라 또 무턱대고 日本을 模倣할 것이 아니라 日本이 世界속에서 어떤 位置를 찾아하고 있다는 點을 檢討하고난 後에 우리의 行動을 決定해야할 것이다.

日本만 쳐다보면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이웃에는 量的으로 큰 中共이 存在한다는 事實도

아울러 考慮해 넣어야 할 것이다. 事實 中共이 量的으로 競爭相對가 되면 어떻게 한다는 點은 計算에 넣고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建設되고 있는 工業分野만해도 單純히 國內市場만을 相對로 생각하고 工場을 세우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때에 넣어 놓고 東南亞市場을 有利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東南亞 各國이 모두 工場을 세우게 된다는 點도 考慮해 넣어야 하지만 우리의 競爭相對에는 先進으로써의 日本이 있을뿐만 아니라 量的으로 큰 存在인 中共이 있다는 點을 計劃에 넣지 않으면 意外의 結果에 맞부딪치게 되는 일이 있다는 點을 알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나 이제로 부터의 世界經濟의 方向은 自由交易를 내다 보고 있는 만큼 이런 程度의 事情에는 明白한 觀測이 없어 가지고는 안될 것이다. 이 程度는 勿論 充分히 考慮되고 事業이 計劃되는 것이겠지만 工場을 세운 後에는 道理가 없다는 事實을 明白히 알세워 놓고 달라 붙여야 한다는 말이다. 建設事業全般에 對하여 부탁하는 말이지만 시멘트 工業界는 當場에 建設에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곧장 國際競爭舞臺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 問題에 對해서 言及하는바이다.

2

시멘트工業은 그야말로 長足の 發展을 했다. 61年度까지만 해도 年產72萬噸의 聞慶(大韓) 三陟(東洋) 두個 工場뿐이던 것이 現 68年度末에는 年產5百萬噸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그內譯을 보면 東洋, 大韓이 各己 72萬噸과 48萬噸으로 增加했고 雙龍의 大單位가 240萬噸, 韓一이 50萬噸 現代 忠北이 各各 40萬噸으로서 都合 490萬噸에 이르고 있다. 이제 이것이 71年度에 이르면 雙龍의 大單位가 倍增하여 490萬噸 韓一, 現代 忠北이 모두 年產 100萬噸에 達하고 此外에 星信, 高麗의 年產 100萬噸 其他 80萬噸의 工場이 또 建設되어 總年產 1 190萬噸에 達할 計劃이다.

이 計劃은 大體로 어김없이 達成될 것으로 보이는 것인데 이렇게 急激히 生産이 增加하면 相當量을 輸出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1950년대

는 絶對的인 輸入品이었지만 이렇게 工場이 建設되고 增産되는 關係로 1969年度에 이미 百餘萬噸이 남아서 輸出되는 計算이며 71년에 이르러서는 437萬噸이 輸出되는 計算으로 되어 있다 輸出實績이야 그때에 가봐야 알노릇이지만 建設事業이 보람있어서 시멘트는 輸入이 完全히 代置되고 이제는 輸出品으로 轉換했다는 點을 注目해야 하겠다.

시멘트는 供給이 需要를 決定하다 시피하는데 있어서 一般商品과는 若干 다르다. 即 一般商品과 같이 需要가 限定되는 것이 아니라 供給에 餘裕가 있으면 需要는 얼마든지 增加하는 것이다, 工場을 爲始한 家屋의 建設뿐 아니라 道路建設을 비롯하여 農村도 제대로 모습을 갖추자면 시멘트는 事實上 거의 無限量으로 必要하게 될 것이다. 價格面의 實情과 아울러서 實際에 있어서는 이러한 關係로 시멘트의 國內需要量은 關係當局의 豫定以上으로 增加하고 따라서 輸出量은 줄어드는 것이 아닐가 推測된다. 이렇듯 供給이 需要를 決定한다는 意味에서 國內의 需要는 더욱 急增하고 그만큼 시멘트 工業界의 將來는 밝은 것이라고 하겠지만 이것이 絶對的인 事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나 農村의 現代化도 時急한 問題인 만큼 이 過程에서 시멘트의 消費는 增大할 것이고 이제부터 새로히 生産工場이 進出된다는 것도 豫測되지 않는 만큼 그렇게 輸出競爭에 말려 들지않어도 될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單純히 日本뿐만 아니라 中共이 앞으로 어느 程度까지 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멘트 輸出에도 問題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年間 437萬噸의 計劃이서 있는 것이고 보니 아무리 시멘트는 重量貨物이라고 하더라도 百萬噸은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百萬噸을 輸出한다면 우선 輸出事情도 생각하여야 할 노릇이니 적은 일이 아니다. 이런 關係로 將次 市場은 東南亞에 制限된다고 보는 것이 妥當하겠는데 이 地域內의 事情을 보더라도 모두 우리보고 輸出을 獨占하라고 가만이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 事實이니 말이다. 10年前에는 우리는 輸入國이 었다. 이제 工場이 세워져서 製品이 남아서 輸出하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의 事

情은 어떠한 말이다. 우리가 지금 建設事業을 하고 있는 形便을 보면 알일이지만 그렇게 다른 나라와 特異한 事情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主原料인 石灰石은 아무데나 있는 形便이고 工場建設도 比較的으로 간단하니 만큼 누구나 工場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別般事情을 달리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시멘트 工場부터 세우고 보는 形便이다. 그래서 1950年代까지만해도 主要輸入國이던 印度, 自由中國, 泰國等은 이미 輸出國으로 轉向했으며 比律賓도 自給段階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우리 나라와 事情이 다를 것이 무엇이나고 할 것이다. 여기에 中共을 計算에 넣어야 하려니와 日本이라는 優秀한 存在가 있는 것이다. 日本은 年間 5千8百萬噸의 生産能力을 가지는 世界第3位の 시멘트 生産國이며 最大의 輸出國으로서 東南亞市場의 約8割을 占하고 있으며 67年度에도 207萬噸의 輸出實績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日本은 지금 工場이 7割밖에 稼動하지 않고 있다 한다. 輸出이 막히니 그만큼 操業短縮을 한 것이다. 이러한 日本의 實情은 우리의 시멘트 工業界에 絶對的인 影響을 주는 事實이 아닐 수 없다. 日本의 67年度 輸出이 207萬噸인데 우리가 71年度에 437萬噸의 輸出計劃을 갖는다는 것은 確實히 無理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우리가 資金事情이 좋고 石灰石 같은 原料에서 有利한 條件을 갖는다하더라도 過剩施設을 한 것이 아니냐는 反省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더욱이나 日本에서 借款을 얻어다 工場을 세운 것이 많으니 어딘가 잘못된 點이 없지 않을까 근심이 아닐 수 없다.

3

借款은 元利金만 갚으면 되는 것이니 그래도 原料와 人力面에서 앞선다고 日本과 맞선들 무슨 相關이나 하겠지만 앞뒤를 가리고 생각할 일이다. 시멘트工場은 말할 것도 없이 큰 工場이므로 建設費가 莫大하게 所要되므로 모두들 借款에 依해서 建設된 것은 勿論이다. 業態가 큰 만치 業者도 모두 굴직 굴직한 人物이라 믿음성

은 있다. 그러나 借款業體라면 借款業體로서의 弱點은 있다. 67년에 政府가 業者들이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는다고 시멘트를 日本으로 부터 免稅輸入하여 業者들은 녹아났다. 業者마다 1~2億원의 損害를 보았으니 經營을 政府에서 맡아 하라고 자빠지는 시늉도 했지만 보기좋은 꼴은 아니었다. 借款을 얻어오고 工場을 세울때에는 相當히 고분고분 했으니 말이다.

지금 갈아서는 政府와 業者의 關係는 決코 正常的이 아니다. 延拂免稅 輸入을 해서 國內生産者를 골탕먹이는 것도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政府가 一方的인 物價高를 보고만 있을수도 없었을 것이다. 하여튼 그런 일이 다시 發見되지 않도록 事前에 對策이 있어야 할 것이다. 業者로 말할 것 같으면 借款은 제대로 清算해 주고 政府의 惠澤 아래서 事業을 하려는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할 것이다. 勿論 急한대로 惠澤이야 받고 싶겠지만 一巨惠澤을 받는다고 하면 그 때문에 꼼작도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빛진 罪人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業者의 自主獨立은 무엇보다 時急한 일이지만 政府도 그 施策위에서 行勢하는 姿勢를 버려야 할 것이다.

即 法律이 있는 世上인데 官의 勢道면 된다는 옛날의 잠고대 생각은 唾棄하지 않으된 안된다. 이른바 官權을 미끼로 삼는다는 것은 言語道斷이라 함을 잘 알아야 하겠다. 앞으로 延拂免稅輸入 같은 것은 다시 없겠지만 事實 政府가 조심해야 할 것은 獨占일 것이다. 이번 國政監査에서 말성이 컸지만 獨寡占에 대한 걱정을 한다면 事實可能性이 第一 큰 것이 시멘트일 것이다. 지금껏 말성이 없었던 것은 多幸한 일이지만 시멘트의 경우 어떠한 影響이 있겠느냐는 것을 생각하고 政府當局者는 먼저 法으로서 對處해야 한다는 事實을 깨달아야 할 일이다. 이번 國政監査에서 借款業態들이 製品에서 暴利를 取하고있다고 크게 떠들석하고 있다. 業者는 暴利건 무엇이건 利益을 圖謀하는 것이 事實이다. 그런데 政府는 借款을 얻느라고 便宜를 봐 주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이다. 어서 돈을 벌어서 資本家가 되라고 國民이야 살던 죽던 그렇게 되는 것 (31面に 繼續)

에 두고 있다. 量의 豊盛은 新規電源의 繼續開發로 保障할 수 있고 信賴性은 系統의 安定이 前提가 되며 價格의 低廉은 發電과 送配電의 原價節減에서 期約된다.

新規電源開發에 있어서 朝鮮電業과 그를 繼承한 韓電은 지금까지 참으로 피땀어린 努力을 계속하여 왔고 앞으로도 當分間은 그 努力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努力은 이제 어느 程度 限界點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電源開發 못지않는 大規模投資를 要하는 電源開發에 送配電施設의 擴充이 그동안 電源開發에 뒤진 現實을 直視할 때 電源開發 負擔의 一部를 民電에 넘긴다는 것은 國家를 위해서나 韓電을 위해서나 時宜에 맞는 處事라 할 수 있다.

電力需要의 開發, 電力系統의 安定, 電力損失의 減少等의 各部門에서 絶對的인 送配電施設의 投資는 原則的으로 電源開發과 10對10의 比率로 併行하여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實績은 10對3에 不過하였다 하니 이 部門의 擴充이 얼마나 時急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껏 抑制되고 있는 新規需用을 積極開發하고 16.8%라는 高率의 電力損失을 最少限으로 줄이고 化學工業等 高度의 電力安定을 要하는 分野의 需用需家까지도 安心하고 電力을 使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民電의 電源開發擔當으로 얻

어지는 韓電의 餘力을 送配電部門에 果敢하게 投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發電原價面에 있어서도 民電의 育成은 그 意義가 큰 것이 있다. 우리 나라 販賣電力價格이 高騰하여 國民生活에 負擔을 주고 生産原價를 높여 低物價政策에 支障을 주고 國產品의 國際競爭力을 弱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자주 指摘되는 事實이지만 政府의 適切한 支援으로 誕生하는 民電이 嚴重한 行政的統制 밑에 最新式大單位發電所를 合理的으로 運營할 때 그 發電原價는 低廉할 것이 明白한 事實이고 그것은 곧 韓電의 對需用家販價에 反映되어 國民生活과 國家經濟의 全般에 걸쳐 바람직한 作用을 하게 될 것이다. 다만 建設初期부터 當場 그 効驗을 期待할 수는 없다는 것이 아쉽기는 하나 數年間に 우리나라 電力料金도 國際水準까지 引下될 것은 確實視되며 이것은 民電育成에 관한 政府施策의 餘德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三千萬이 結束하여 前進에 前進을 거듭하는 韓國의 前途는 洋洋하다. 그 前進의 推進力이 되고 先導가 되는 民電의 前途 또한 洋洋하다. 洋洋한 前途에는 그러나 반드시 試鍊과 苦難이 숨어 있게 마련이다. 祖國과 運命을 같이하는 民電의 第1號를 責任맡은 筆者에게 業界諸位의 指導와 鞭撻이 베풀어질 것을 바라 마지않는다.

#### 27面에서

을 바란 것이 아니냐고 反問하지 않을 수 없다. 資本主義經濟의 成長期에 있어서 獨占을 主로하는 資本의 罪惡이 얼마나 甚하였던 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先進國의 뒤를 팔어간다고 그 잘 못된 點까지 本本을 必要는 없는 것이라면, 獨占規制에 대한 立法措置는 있어야 마땅할 것이 아닌가 이제와서야 떠들석하고 있지만 獨寡品의 規制라는 것은 하나도 새로운 말이 아니다. 적어도 先進國의 程度에서 떨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 말이다.

多幸히 시멘트는 對象品目으로 되어있지 않지만 注意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먼저 施策當局의 警覺心을 높이고자 하는바 이지만 시멘트는 獨寡品이 되기 쉬운 品目이기 때문에 事前에 自制하는 바 있기를 부탁하여 두고자 한다. 그리고한 마디로 말한다면 業界는 借款이라는 빛을 빨리 清算하고 國際競爭力을 強化해야 한다는 점이다 政府더러 經營하라고 해 보기까지 해보았으니,

充分히 알 일이지만 事情이 거기에 까지 이르렀던 裏面의 경위를 생각하더라도 自主獨立이 先行條件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政府의 惠澤을 받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되면 弱點을 잡힌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지금 當장은 스스로의 立地條件을 굳이는 것이 앞서는 일이겠지만 生産過剩으로 무서운, 競爭이 불게 된다는 것은 눈앞에 매달린 事實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經營合理化는 이過程에서, 自然히 이루어질 노릇이지만 甬을 길을 海外輸出하나 밖에 없다. 똑같은 生産業者들인지라 그 競爭은 不得已한 노릇이겠지만 海外輸出에 있어서는 共同努力의 길이 없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對外輸出問題에 있어서 建設問題에 앞장을 서고 있는 當局이 應當한 責任感을 가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나 生産工場은 모두 政府의 計劃事業으로서 對外借款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만큼 責任의 過半이 그 편에 있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 建設의 先導事業이니만큼 共同努力이 成果있기를 빌어마지 않는다.